

문옥배 대전문화재단 신임 사무처장

“문예진흥기금 투명한 분배 위해 최선”

오는 6일 대전문화재단의 창립기념식을 앞두고 문옥배(45)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출근했다. 일주일에 몇 차례 대학 강단에 서고, 여러 문화단체의 자문위원 등을 맡아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한다.

하루에도 수번의 회의에, 사람을 만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다는 문 사무처장은 “몸이 힘든 것보다 ‘잘해야겠다’는 중압감이 더 힘든 요즘”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자체에서 했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네’ 라는 평가가 나올까 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단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면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문 사무처장의 그런 고민은 10년 가까이 계속돼왔다. 지난 10여 년 가장 대전시의 문예진흥기금 심사를 외부에서 평가하고, 또 직접 참여하면서 문예진흥 기금의 허와 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 여기에 대전이응노미술관 운영 위원 및 대전시립예술단 운영 자문위원, 대전문화연대 정책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책을 두루 맡으면서 대전 문화예술계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도 꼽힌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사무처장으로 발탁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전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문예진흥기금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일이겠지요.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시스템화해 투명하게 만들 겁니다. 특정인이나 단체, 장르 등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선정 과정을 인정할 수 있는 체계를 조만간 갖춰놓을 예정입니다. 기금분배가 사람에 의해 좌우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는 또 조만간 장르별로 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를 만나 공모사업의 자격기준과 심사위원 기준 등의 요구를 듣고 절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관 소통’을 첫 번째 과제로 꼽는 그에게 있어 기념식 이후 가장 중요한 행보이기도 하다.

문 사무처장은 “예전에는 모든 장르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면, 이제는 섬세하게 장르별 특성에 맞춰 심사조건을 만들 계획”이라며 “아마도 11월 말 정도에는 공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대전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전에 평론가이자 학자”라며 “항상 평균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균형감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 대성고 출신의 문 사무처장은 공주대 음악교육과를 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학 석사를 마쳤고, 저서로는 ‘대전음악의 현상과 인식’(2006)과 ‘대전음악 60년사’(2008) 등이 있다.

한편 대전문화재단 창립기념식이 6일 오후 2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시민과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며, 이날 현판 제막식과 함께 풍물경연, 금관 6중주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글 김효숙 기자 press1218@daejonilbo.com

사진 장길문 기자 zzang@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